

에세이 통해 '뚜렷한 개성' 드러내라



팬데믹을 겪으면서 상당수의 대학들은 표준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 정책을 버렸다.

대신 많은 대학들은 시험점수 제출을 원하는 학생만 점수를 내도록 하는 옵션 정책 채택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립대 시스템인 UC의 경우 아예 표준시험 점수를 받지 않는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을 도입했다.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테스트 옵션 정책이 확대된 상황에서 에세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그러므로 에세이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인다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면서 경쟁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세이 작성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자신이 쓴 에세이를 읽어보고, 다듬으면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늦어도 11학년 직후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에세이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

고유의 개성을 에세이를 통해 부각시킨다면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에세이의 소재를 브레인스토밍 할 때, 즉 어떤 토픽으로 글을 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주변의 다른 학생들과 무엇이 다른지 깊이 생각해 본다. 입학 사정관들도 어른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이

고 평범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학생, 독특한 개성을 갖춘 학생을 찾는다.

학사정관들도 사람이다. 에세이를 읽을 때 지원자 100명 중 100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평범한 스토리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남들이 다들 법한 뻔한 내용의 에세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역사를 좋아한다고 에세이에 쓰고 싶다면 역사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좋아하는가? 내가 심취한 역사적 사건이나 시기가 있는가? 나는 왜 그 사건이나 시기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나는 다른 학생들과 뭐가 다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를 에세이를 통해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고민해보자.

세 번째는 '팔방미인' (well-rounded) 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학 입시에서 뛰어난 성적과 양질의 추천서는 출발선이나 다름 없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명문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잘하는 것도 물론 큰 강점이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맛잇한 색깔보다는, 한쪽으로 기울어서 개인의 개성이나 색깔이 잘 드러나는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더 유리하다.

어떤 학생들은 특정 과외 활동에 열정을 갖고 스테이트 또는 내셔널 수준의 성과를 낸다. 큰 상을 받고,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 또 어떤 학생들은 교사들과 훌륭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능력을 인정 받아, 추천서에서 교사가 '나의 27년 교사 인생 동안 경험한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난 학생' 이라고 칭찬한다.

이런 강력한 성과나 좋은 추천서가 있다면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일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홈스쿨링 이유 "종교 아닌 안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홈스쿨링이 이념·종교적으로 훨씬 더 확대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거엔 종교적 이유로 가정교육을 택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엔 안전이나 학교 교육환경 우려 등 홈스쿨링의 동기가 더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6일 자체 설문조사 결과 홈스쿨링을 선택한 학부모 504명 중 34%가 '종교 교육'을 재택교육 시행 이유로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 연방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학부모 3명 중 2명이 종교적 문제로 홈스쿨링을 선택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대신 안전문제 등을 홈스쿨링 동기로 꼽은 응답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중 62%가 총격 사건에 대한 우려로 홈스쿨링을 시작했다고 답했으며, 58%는 학교내 괴롭힘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12세, 16세 자녀를 키우는 전직 교사 코트니 브리세뇨씨는 WP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살아남았다"며 "아이들을 총기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홈스쿨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립학교의 정치화'를 가정학습 이유로 꼽은 학부모도 절반에 가까웠다. 이들 학부모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진보적인 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팬데믹 이후 홈스쿨링을 시작한 가정의 정체성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연방 조사에선 홈스쿨링

학생 10명 중 약 7명이 백인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선 히스패닉계 가정의 홈스쿨링이 급증한 것이다.

정치 성향 변화도 눈에 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홈스쿨링을 시작한 가정은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의 비율이 반반 수준이었지만, 과거에는 3대 1 비율이었다고 WP는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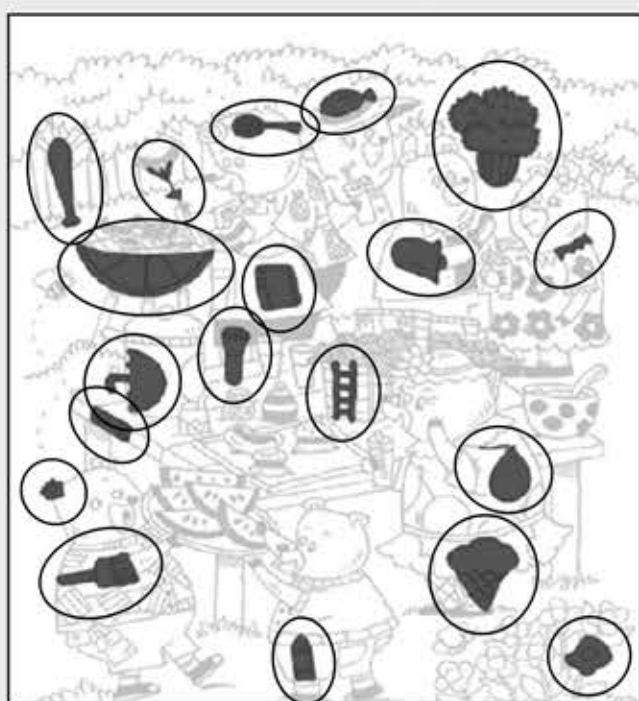
향후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다고 답한 학부모는 늘어났다. 과거 절반가량에 그쳤던 것과 달리 팬데믹 이후 홈스쿨링을 시작한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추후 자녀를 지역 학교에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홈스쿨링 형태 역시 다양해졌다. 2019년 21%만이 최소 교육을 위해 자녀를 과외교사에게 맡길 수 있다고 응답했지만, 이번에는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10명 중 6명은 자녀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5명 중 1명은 홈스쿨 협동조합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디애나대학의 로버트 쿤츠먼 교수는 "이번 조사로 자녀의 필요에 맞는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정이 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홈스쿨링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shutterstock

숨은그림찾기 정답



숫자퍼즐 정답

5	3	8	4	2	1	7	6	9
6	4	9	7	5	3	2	8	1
1	7	2	6	8	9	3	4	5
7	2	5	1	3	8	4	9	6
3	9	4	2	6	5	8	1	7
8	6	1	9	7	4	5	2	3
9	5	6	8	4	7	1	3	2
4	1	7	3	9	2	6	5	8
2	8	3	5	1	6	9	7	4